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제27대·28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제27대·28대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1월 24일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2022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연합회원을 모시고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변철호 제27대 연합회장의 이임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변 회장은 “그동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방송 기술인의 발전과 함께 언론 개혁에도 힘써왔다.”라며 전후 사정과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연합회 회계연도 조정과 그 밖의 낡은 규정 수정, 다양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연합회의 발전과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높이하고자 했다.”라고 밝히며, 이번 27대 연합회 진행부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과 관심으로 지켜봐 준 연합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힘든 여건에서 연합회를 이끌어 갈 28대 집행부에 연합회원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전하며, “2022년 임인년은 범의 기운을 받아 비범하고, 대범하고, 모범적이고, 평범한 한 해가 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평범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2년간 뼈저리게 실감했다. 연합회원들께서 평범한 일상을 찾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라고 올해의 소망을 전했다.



감사패를 받는 진신우 협회장



공로상을 받는 기정모 부회장



변철호 전 연합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이종하 신임 연합회장



2022 정기 대의원대회와 제27대·28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연합회원들

다음으로 27대 연합회 활동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감사패에는 정책협의회로 수고한 SBS 진신우, EBS 김종기, CBS 김정용, YTN 신동훈 전 협회장에게 수여되었으며 변철호 회장의 시상으로 진신우 협회장이 대표로 수상했다. 공로패는 27대를 함께 이끌었던 집행부와 방송과기술 편집장에게 전달되었으며, 대표로 기정모 연합회 전 부회장, 송주호 방송과기술 전 편집장이 수상했다. 그리고 새롭게 취임하는 이종하 신임 연합회장이 이임하는 변철호 연합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연합회 기 인도식이 진행되었다. 변철호 회장은 이종하 신임 회장에게 연합회 기를 전달했으며, 이를 받은 이종하 회장은 기를 좌우로 흔들며, 제28대 연합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취임사로 28대 연합회의 목표를 전하는
이종하 신임 연합회장

행사의 마지막으로 이종하 신임 연합회장의 취임사가 진행되었다. 이 회장은 연합회원에게 인사를 하며, 그동안 수고한 27대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의미를 표했다. 이어서 “코로나 상황으로 연합회가 계획했던 사업이 좌초되며, 운영 여건이 여의치 않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발전적인 연합회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한다.”라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장은 “연합회의 내실 강화와 위상 제고”,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방송기술 비전 수립’, ‘미래를 위한 미디어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임기 첫해를 시작하려 한다”고 전하며, 올해 KOBA의 정상적인 개최를 바랐다. 연합회 사업에 관해서는 “수익 다변화를 위해 신사업 발굴, 사단법인화를 통해 연합회 재정의 내실화를 실현할 것이며, 여러 방송 직능단체 및 관련 언론단체와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상황에서 우리는 공영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비전을 수립하고, 기술을 선도하며 방송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방송기술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며, 적극적인 교육 콘텐츠 발굴과 미래를 위한 미디어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다짐하며, 취임사를 마쳤다. 